

한형조 무문란 탐방

69

달마의 파도 ②

당시의 낙양은 산업과 교역의 난민한 국제도시였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면서 중원의 관문인 이곳에 거대한 불교사원과 고층탑이 지어졌다. 황실의 명으로 수십년에 걸쳐 지어진 영녕사에는 높이가 90장, 적어도 200미터가 넘는 9층탑이 있었다. 성밖 백리에서도 그 위용이 보였고, 여기 올라서면 눈 아래 안개 구름 사이로 도성 안의 집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한다.

이방의 서역승들은 황실과 귀족의 특별한 지우(知遇)를 받아 경전을 번역하고 강의를 하며, 법회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 화려한 도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루한 승려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멀리 변경에서 막 도착하여, 탐의 금반이 햇빛에 빛나고, 보석이 바람에 울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이 150의 그 순례자는 이토록 훌륭한 절은 처음이라면서 나무 나무를 의우며 합장을 거듭했다(낙양가람기)." 이것이 달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나로서는 아무래도 여기 언급된 페르시아 승려가 선의 초조인 그 달마같아 보이지 않는다. 서월에 처음 온 시골 촌로의 순진한 감탄이 있을 뿐, 새로운 불교운동의 개창자로서의 서늘퍼런 면모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제와의 대화』에서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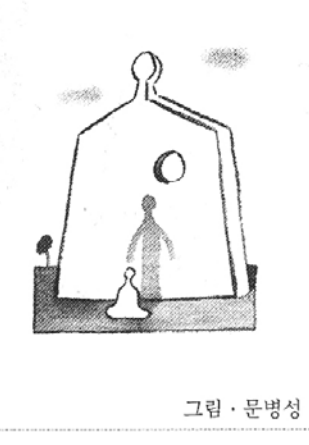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한 걸음 나아가 예배를 통해 나를 비워보지 않고는 불교를 말할 수 없다. 달마는 불교가 학문과 의식으로 굳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 했을 뿐이다. 불교란 무엇인가. 삶의 문제를 풀어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친 결과가 아니던가. 팔만사천의 법문이 정형화된 의문과 해답의 매뉴얼이 된 곳에

비어있는 마음을 자각하자

달마는 실존적인 '삶의 문제' 해답 제시

마는 철저한 독립적 정신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그는 경전을 번역하지도 않고 이방의 낯선 교설을 해설하려 하지도 않았다. 의식(儀式)을 집전해 내세를 보증하거나 신이(神異)를 행해 세간의 관심을 끌려 하지 않았다. 그는 교화으로서의 불교의 한계와 그 소외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넘어 불교의 근본정신과 손잡으려 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것이 있다. 선(禪)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선 이전의 것을 무시하고, 선 이외의 것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후한(後漢)때 불교가 전래된 이래, 위대한 번역사들과 그 후원자들, 그리고 일반대중의 헌신과 귀가 없었다면 우리에겐 불교가 있었겠는가. 달마의 비판과 도전은 거꾸로, 불교가 이미 중국에 든든한 토대를 구축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 배경을 떠나 선을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이 점을 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재발 바라노니, 처음 불교를 알고자 찾아온 학생들에게 "부처는 본시 없는 것이요"라든가, "불교는 철저한 자력(自力)의 종교이므로 기도나 참배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기 말기를 당부한다. 선은 그런 것이 아니다. 경전을 믿지 않고는, 교화에 걸려 넘어져 보지 않고는 선을 말할 수 없다!

정정 불교는 없다. 널러진 책을 덮고, 소란을 떨치고 문제 자체를 바라보라. 문제를 설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여럿일 것이다. 절대자에서 시작하는 종교도 있고 객관에서 시작하는 철학도 있다. 사회에서 시작하는 학문이 있고, 자연에서 시작하는 과학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 문제는 나 자신 아닌가. 객관적 인간이 아닌, 철저히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개인이 아닌.

만법(萬法)은 결국 하나로 귀일(歸一)한다. "우리는 지금 고통스럽다.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창시자가 던졌던 바로 그 물음이었다. 달마는 수많은 은사와 주석자들, 그리고 의식집전자들에게 의해 묻혀져 있던 그 의제(agenda)를 전면으로 부각시켜 실존적 해답을 촉구한 것이다.

해가 물은 것은 단순 직설한 것이었다. "내 마음은 편지 않습니다." 그는 우주의 권위나 초월자, 혹은 사물의 원리에 대해 묻지 않는다. 심지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묻지 않는다. 그것들은 두루 한가한 잡담이다. 내게 부당한 문제는 지금 내가 불행하고 불안하다는 것, 바로 그 실존적 사실 하나이다. 달마의 해결책은 여는 설교가와는 달랐다. "내 마음을 가져와 보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달마는 마음을 이러저러하게 운용하라고 충고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마음의 정체, 그 비어있는(空) 본성과 사무치게 만날 때 그때 문제가 한꺼번에(頓) 해결될 것이라고만 일컫는다. 이를 선은 나중에 직지인심(直指人心) 전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모토화했다. 이런 점에서 선은 대승공관(大乘空觀)의 확장, 혹은 실천적 적용이기도 하다. 관건은 비어있는 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것! 달마의 면벽(面壁) 9년은 바로 이 비어있는(空) 본성과 사물을 가리킨다. 벽(壁)은 차단이며 방호벽이다. 마음, 혹은 불성으로 침투 혼입해 들어오는 정체화(identification)의 오염을 차단할 것. 이때 경험 자체를 부정하거나 좌악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경향을 물러가고 강화되는 자아의 고착과 확대까지 경험 자체가 아닌 것이다. '식은 재, 죽은 고목'을 어디다 쓰겠는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불교와 수학

국난극복과 불교

김용운

고사리의 작은 어느 잎 하나에도 전체와 똑같은 구조가 있다. 복잡성 이론은 이와같은 부분이 전체구조와 같은, 즉 프랙탈 현상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불교에서는 이 사상을 만다라의 구조에서 묘사한다. 만다라는 가운데 대일여래(大日如來)를 두고 화면 곳곳에 여러 부처를 배치하는데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철학으로 모두가 한결같이 온누리에 불성을 펼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과 정반대로 악(惡)의 만다라, 즉 프랙탈이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안기부의 복종 공작, 국제형의 정치자금 모금, 권력의 부정용자압력 등 심복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광개 사회나 다름없는 힘의 논리로 국가 7관의 사유화를 시도했으며, 도저히 민주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대역 현위이다. 이같은 악의 프랙탈구조는 하나의 부리에서 발생한 한국병이며 재벌, 대학, ... 말단의 사회조직에 이르기 까지 광배해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MF이고 국난이고 간에 남의 일인 듯 '어디 잘 좀 해보시오'라는 냉소 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존재이다. 관리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 되고, 기특권 세력의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무슨 개혁이냐'는 논리로 악을 그냥 덮어두려는 속셈이 발동한다. 그리하여 국난과 사이에 '언제 한국인이 재대로 일해 본 적이 있어'라는 자학적 풍조를 만연시킨다. 복잡성이론은 다윈의 고전적 적자

생존의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발(創發)의 개념을 내세운다. 일본 어느 섬의 원숭이 무리는 모나나 흙이 묻은 고구마로 사육되었으나 6년이 지난 어느날 그중 한 마리가 바다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다른 또 한 마리가 그것을 하게되고 그 수가 차츰 늘어 일정한 수에 달하자 그 섬 안의 원숭이는 물론 다른 지역의 그것들 보지 못한 원숭이들까지도 모두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이것과 유사한 일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복잡성의 과학은 한 종의 집단에서 진보적인 행동을 취하는 개체가 일정한 수에 도달함으로써 전체가 움직이 되고, 기특권 세력의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무슨 개혁이냐'는 논리로 악을 그냥 덮어두려는 속셈이 발동한다. 그리하여 국난과 사이에 '언제 한국인이 재대로 일해 본 적이 있어'라는 자학적 풍조를 만연시킨다. 복잡성이론은 다윈의 고전적 적자

등할 때까지 전혀 무관심했던 나머지 전부가 마지막 100마리의 행동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다. 서울의 거리를 날아다니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며칠 후 뉴욕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나비효과)는 사실이 실감되는 순간이다. 복잡성이론은 사회적 질서, 민족 심리의 미묘한 변화도 설명한다. 흔히 보는 군중심리의 발생도 그 보기이다. 종전에는 신비롭게 표현되어 온 사회적 현상이 창발이론으로 설명된다. 가령 A. 스미스는 시장을

자유방임해도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이지 않는 신의 손(上帝의 손)'으로 설명한다. 이 사실은 곧 몇 사람의 경제적 행동으로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케 하는 일이 창발됨을 의미하고 있다. 민족의 기본적 가치관인 원형의 형성도 같은 이치에서 형성된 것이다. 한 수행자의 대승적인 자비의 마음이 온누리에 빛을 더 할 수 있다는 불교적 신념은 불성의 창발이다. 이순신 장군을 괴롭힌 것은 왜군 보다는 공을 시샘하는 고관이었으며 또한 원군의 군대는 이순신 군의 분전을 보고도 외면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의병 등의 활약으로 왜적을 물리쳤다. 일제 36년 그리고 독재정권 36년을 겪고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단순한 정권차원의 일이 아닌, 민족 양심의 부활을 상징한다. 한국인은 위기를 곧잘 신바람으로 극복해 왔다.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의병 또는 금모기 운동을 경험했고, 오늘날에도 냉소주의자에 맞서 건전한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암세포처럼 만연한 한국병을 건전한 선의식으로 치유하는 일은 곧, 악의 프랙탈을 불교적 만다라의 세계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너 아닌 나 하나의 자각이 민족정기를 창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하와이 대원사 "불교문화원" 완공을 위한 "만등불사" 모연문

말미암 대원사 큰법당

마무리 불사종인 하와이 대원사 불교문화원 전경

부처님께서 항상 이르시되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정법을 만나기는 더욱 더 어렵다"고 하시고, 깨끗한 신심을 지닌 재가신자로서 정법을 펴는 불도량을 건립하는 공덕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누누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님 당시에는 범비사라 왕과 금고독 장자들이 대시주자가 되어 각각 즉립정사와 기원정사같은 역사적인 대가람을 창건하였고, 그 전통은 인도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티베트와 남방불교권을 비롯하여 이곳 하와이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도량이 반드시 왕과 부호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가난한 할머니가 등하나를 부처님께 올림으로써 무량한 공덕을 얻은 가르침이 있듯이, 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 도량을 향하는 깨끗한 그 마음과 지극한 그 정성인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 하와이에 3천5백여평 대지 위에 대원사와 같은 여법한 불도량이 건립된 것은 불자님 한 분 한 분이 저 범비사라왕과 가난한 할머니의 정성을 지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와이 대원사는 10여년에 걸쳐 추진해 온 기나긴 불사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총 3천여평에 이르는 웅대한 불교문화원이 완공되면 저희는 세계불교도우회(WFB)체회를 시작으로 전세계의 불자들에게 그 유익한 법의 향기를 전하는 등 미주에서 한국불교 교포의 중심도량으로 역할을 하는 등 많은 뜻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원사 불교문화원은 해외에 지어지는 민간 단위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공사여서 저희들의 정열과 힘만으로는 부족하여 벌써 불심양민 많은 도움을 주신 교구의 불자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무리 불사를 위한 "만등불사"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불사가 성취되는 날은 연등 하나 하나에는 저 금고독 장자와 빈자 일등의 정성이 깃들어서 있으며, 또 만등의 연등이 하와이를 밝게 비추고 나아가 온세상과 허공과 법계를 두루 비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자님들의 공덕 또한 허공과 법계에 두루차고 빛날 것입니다. 하와이 대원사 불교문화원 건립 만등불사에 불자여러분들의 심시일반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동참비 : 1인 1등 만원 (₩10,000) 서울은행 14104-0219307 (예금주 권도현)

하와이 대원사 불교문화원 건립위원회 회장 차윤진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대원사 주지 권도현 합장

■ 주소 : 2420 Halelaau PL, Honolulu, Hawaii 96816 U. S. A.
■ 전화 : (808) 735-7858

세상을 관심 갖고 보라

정정은 마치 길을 따라 걷는 것과 비슷하다. 로버트 에릭슨이라는 미국인 스님이 한 번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를 공부하길 원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은 동해안 인접 국가인 일본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었기에 웬만한 정치·경제적 배경이 없는 사람은 일본 방문이 쉽지 않았다. 그는 먼저 일본대사관을 찾아가, 입국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은 "죄송하지만 비자를 내줄 수가 없군요. 진사가 아닙니까, 양국 정부는 당분간 민간인의 입·출국을 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에릭슨님은 주미 일본대사를 만나 길 청했다. 잠시후 학식과 인력을 갖춘 대사를 만날 수 있었다. 대사는 차를 권하며 "왜 일본에 가려고 합니까. 인접국가에서 전쟁중이라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에릭슨님은 "누구든지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히 전쟁을 멈출 수 있고, 앉아서 차 한잔을 마시는 것으로 핵무기 경쟁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리가 이상(我相)을

책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9

만약 우리에게 온 마음을 가지고 모든 존재를 인식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에릭슨 스님의 승복 옷 소매 속에 숨겨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우리는 신문과 잡지에서 수많은 소식들을 접한다. 이것들은 그 양과 내용만으로 놓고 대지와 공기를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팔정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정치적이거나 자선과 타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유·무정물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상 놓고 분별심 없이 유·무정물과 관계 맺으면 자기마음 타인에게 전달

로도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또 다뤄져 젖바퀴 같은 일상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세간의 삶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는 단지 산책하는 것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고, 앉아서 차 한잔을 마시는 것으로 핵무기 경쟁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리가 이상(我相)을 갖 것 것과 연관이 없다. 고행은 바로 '오름과 내림' '밝음과 어둠'과 같은 변화의 이중성을 바로 볼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음을 열고 숨결을 다하고, 마음을 청기는 것으로 우리는 고행에 이를 수 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나에게 있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신비스럽고 경이심을 일으키

고 거대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분명히 어떤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수긍하고 싶다. 그리고 나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같은 확신을 심어주고 싶다.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이곳(세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이것은 너무도 짧기 때문에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경이로운 사실들을 모두 목격하기는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그 기간동안의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떤 것과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달을 혹은 마음챙김의 정신은 우리의 실생활, 육체적 감각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에서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세간의 고품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사랑이며, 마음챙김이란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되짚어 보면 깨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것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란 분별심 없이 나와 타인 그리고 모든 유·무정물의 마음과 감정에 함께 하는 것이다.

아잔나 스님은 이런 경구를 우리에게 주었다. "마음은 지옥에서 생기기 전에 지옥을 지나간다. 따라서 마음은 분별이, 마음의 감정을 생겨나며, 모든 것을 분해하려고만 한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hia.com)

